____월 ____일

다음은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소리 내어 기사를 읽고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브랜드 로고가 도드라진 옷을 입는 건 촌티의 상징이었다. 소위 '명품'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옷과 액세서리를 걸친 사람들은 부(富)는 이뤘으나 안목까지 키우진 못한 졸부쯤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렇게 자취를 감췄던 로고가 돌아오고 있다. 캐주얼·스포츠 의류는 물론이고 도도한 하이 패션 브랜드도 로고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이 패션과 스트리트(길거리) 패션 브랜드가 협업해 함께 로고를 노출하거나, 아예 패션과 무관한 기업의 로고를 빌려오기도 한다. (생략)

– 조선일보 2017년 3월 22일





이 기사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제목을 써 보세요.

정답은 100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문 기사 중 마음에 드는 문장을 써 보세요.